

우연, 필연, 인연(?)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는 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케 한 것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젃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 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젃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 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 날에 예그론으로 돌아갔더라 [개역, 사무엘상 6:1-16]

이 말씀은 우선 재미가 있어서 이 본문으로 설교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으면서 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는데 그 예를 어떤 분의 설교에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소는 바로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식을 떼어놓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울며불며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우리 자신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감동적이다 싶기도 하고 또 그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말은 좋은 말인데 여기 기록된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이 소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좋은 책을 몇 권 샀더니 보너스로 한 권 끼워 주더라구요. 그래서 그 책을 받아서 제가 첫 장을 딱 넘기는 순간에 ‘이건 앞으로 아주 소중한게 보관을 해야 할 책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아주 소중한게 꽂아 놓았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표본으로 쓸까 싶어요. 그 책의 두 번째 설교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 설교의 요지는 ‘소는 아주 근면한 짐승이다. 그래서 우리는 소의 희생정신을 배워야 한다.’였는데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쓴 책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속이 얼마나 끓어오르던지... 이 본문 어디에 소는 근면한 짐승이다. 그래서 우리는 소의 근면을 본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냐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에 초점을 두지 않고 본문은 대강 읽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좋은 이야기를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왕 그렇게 할려면 왜 소는 근면하다는 얘기만 하나요? 소는 고기가 아주 많다. 아니면 쇠고기는 맛있다. 이런 얘기는 왜 안 해요? 그런 식으로 아무 이야기나 갖다 붙여놓으면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 효자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워낙 성경에 대해서 열심 있어서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항상 그 문맥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훈련이 늘 필요합니다. 그런 이상한 설교를 제가 하도 많이 들어서 이 본문을 저 나름대로 이걸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사사기 말엽, 즉 엘리와 갱패 같은 아들이 있던 바로 그 시

대입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크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전부 블레셋의 압제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소는 완전히 부서진 것 같습니다. 그랬던 어마어마한 큰 전쟁이 사사시대 말엽에 있었습니다. 물론 기록은 사무엘상에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이거 이래서 안되겠다.’ 그래서 뭘 생각을 했느냐 하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제일 앞장 섰던 게 뭐죠?

언약궤... 법궤.

둘 다 같은 말입니다. 그 궤가 제일 앞에 들어가면서 강이 갈라졌거든요. 아 맞다. 그걸 생각해낸 거죠. 여리고 성을 둘 때에 제일 앞장섰던 것도 여전히 법궤였습니다. 그 법궤를 앞세워서 이겼던 것을 생각해내고 ‘법궤를 가지고 오자.’ 그래서 법궤를 메고 이 전쟁에 왔습니다.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이제 이겼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기가 꺾어버렸습니다. 이게 웬 소리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진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단다. 그 하나님의 궤는 워낙 유명해서 블레셋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꺾였으면 도망갈 일이지 ‘아이고 마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로 한번 붙어나 보자.’ 그래서 붙었더니 어렵쇼? 블레셋이 크게 이겨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이스라엘은 이 법궤를 빼앗겼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서 자기들의 신인 다곤의 신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위대한 신이시여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 이튿날 보니까 이 다곤의 신이 목이 날아가고 팔다리가 날아가고 엎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이 큰일났다 싶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돌아서 5장 맨 끝에 보면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가 진행되는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런 점 하나는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법궤는 지성소에 모셔져 있을 때에, 그 성소 안의 가장 거룩한 방 거기에 모셔져 있을 때에 제사장도 1년에 단 한번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가서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즉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그 시체를 끌어낼 수 있도록 발목에 줄을 매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옷에는 방울이 달려서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날 때는 제사장이 살아 있구나 소리가 멎으면 죽은 줄 알고 밖에서 줄로 당겨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엄숙하게 모셔졌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곤 신당 앞에 하나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꼴입니다. 누가 창피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스스로 잡혀간 겁니다. 안 가실 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징계하는 방편으로 이 법궤가,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이것이 블레셋까지 잡혀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엄청나게 모욕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 내게 이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 손해인데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일찍 죽으면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시겠지요.” 하고 간 굶은 소릴 하거든요. 너무 애용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 내한테는 손해지만 너를 위해서라면 내 못 봐주겠다.”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아이를 참 잘 키워요. 이 아이가 어디 가서 옆집 유리창을 왕창 깨버렸습니다. 애들이 야구놀이 하다가 유리창을 잘 깨지 않습니까? 야단을 맞고 왔는데 저녁에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데리고 그 집에 찾아가서 집주인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용서를 구하고 유리창 값 다 물어내고 해결하고 돌아오면서 그 아버지가 아이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잘못하면 아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조금 다르죠. 우리 애가 남의 집 유리창 왕창 깨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더 안 묻겠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명색이 교육학자입니다.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분, 자식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부러 개인적으로 찾아가서까지 잘못했음을 다 고백하고 아이에게 그런 모습을 일일이 보여주는 것은 교육자다운 모습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체면이나 돈보다 아이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런 모욕도 감수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모욕을 돌려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6장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엄중하게 다루어졌던 법궤가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1절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는 지 일곱 달이라’** 여기 지방이라는 성경구절에 혹시 1자가 쓰여져 있습니까? 지방이라는 글자 옆에 1자가 안 쓰여 있는 성경은 죄송하지만 빨리 바꾸십시오. 그런 성경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 1자가 무슨 의미죠? 그 밑에 보면 ‘들’하고 적혀 있습니다. 이 ‘지방’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문은 ‘들’로 번역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그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들에 있는 지 일곱 달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번역을 달리 해야 할 경우에 성경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요즘 성경이 워낙 종류가 많지만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안 밝혀 놓은 성경은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블레셋 지방에 있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들에 있었겠습니까? 문맥을 이렇게 따져 보면 들에 있는 게 맞아요. 왜 들에 갖다 놓겠습니까? 큰 도시에 갖다 놓으니까 도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싫다 나도 싫다 전부 거절하면 어디 갖다 놓아요? 사람 없는 곳에 갖다 놓을 수밖에 없죠. 들판에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그렇게 엄중하게 다루었던 이 법궤가 사람이 없는 들판에 일곱 달이나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수난이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불쌍하게 만든 겁니까? 이스라엘요? 그 대표가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이었죠. 요즘 식으로 하면 목사님이고 목사님의 대를 이은, 요즘 교회 세습 때문에 시골벽벽 합디다만 목사님과 그 밑의 목사님 아들 되는 목사님들이 완전히 망쳐놓은 거죠.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욕보이고 있는 게 아닌지 주의합니다. 우리하고 별 관계없는 것 같아서 이쯤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수모를 감당하시는 분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들이 바르게 믿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온갖 모욕을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예수님을 보세요. 제발 우리를 통해서 그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걸 감당을 못해서 머리를 싸매고 고심을 하는 겁니다. 전쟁에 이기고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파요? 블레셋 방백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치루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거야 하나님의 법궤를 뺏아 왔으니까 그렇죠. 이게 주일학교 답입니다. 조금 수준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법궤를 다루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예. 좀 낫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대답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와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다곤 신이시여 이스라엘의 신을 잡아 왔습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을 잡아왔다는 이 생각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좀더 넓게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블레셋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너무 좋아할 것 없어요. 왜요? 이 블레셋의 이김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맛있는 것 해놓고 있는데 만이가 잘못해서 아빠한테 야단을 잔뜩 맞았어요. “이 녀석 주지 말고 애 줘.” 그래서 둘째가 다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하면 안돼요. “다른 날은 아이스크림 한 개밖에 못 먹었는데 오늘은 우리 형이 아빠한테 야단 맞고 오늘은 아이스크림 두 개다.” 하고 너무 좋아할 것 못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이라도 아버지한테 더 많이 얻어먹으려고 하면 그때 ‘두 개다!’ 하고 좋아하면 안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양보해야 돼요? 양보하면 아빠가 또 뭐라고 하잖아요. 차라리 냉장고에 하나 갖다 놔 놓고 “형아 저기 갖다 왔으니까 나중에 먹어.” 이 정도 되면 야단치는 아버지도 나중에 기분이 좋죠. 블레셋요?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 못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잠시 도구로 쓰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블레셋 방백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첫째는 우선 속건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속건제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도적질을 했거나 잘못했을 때 배상하는 성격의 제사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6절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니가 6절이 그 답이 되는데 6절을 요약하면 무슨 말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애굽인과 바로가 그 명령대로 실천하지 않고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않느냐? 애굽에 있었던 그 사건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두들겨 맞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지 않았느냐. 아무 소용이 없었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에요? 빨리 보 내란 얘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반항하고 버티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대답이죠?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7절 8절 9절요. 간단하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험...

시험해보자 이 말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앙인지 아닌지를 시험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이죠. 대답을 그렇게 세 가지로 합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보겠습니다.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우연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없이 어쩌다 보니까 일이 되어지는 것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나 혹은 우연이라는 사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6장 9절.

아, 6장 9절에 있답니다. 성경에 우연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6장 9절에 왜 있어요?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증명하느라고 우연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많다고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대 여섯 군데 정도 나옵니다.

가령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과 역대기하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남쪽 왕 여호사밧하고 연합군을 만들어 전쟁을 하러 가는데 그때 가짜 선지자들은 “가십시오. 가면 이깁니다.” 이렇게 말하고 진짜 선지자는 “가면 죽습니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누구? 아합 왕요.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아합 왕은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죽습니다. 그 때 그 아합 왕이 그 선지자를 “내가 올 때까지 가뉘 보라.”고 합니다. 그 선지자가 간히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살아 온다고요. 결코 살아오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라고 들어서 전쟁을 나갔습니다. 아합 왕이 찢리는 데가 아무래도 있었던지 왕복을 벗고 평민으로 복장을 갈아입고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혀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적군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아합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죠. ‘바보 같은 게 이 전쟁통에 왕의 티를 내면 어떡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웬걸요? 어떤 병사가, 성경 구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쏘았는데 갑옷 슬기, 갑옷을 이렇게 덮어쓰고 있어도 틈새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화살이 맞아서 아합이 죽고 말았습니다. 정말 우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왕을 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왕복을 입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날아간 화살이 아합을 맞춘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쏜 사람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연이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번 전투에 이 일로 인해서 반드시 아합 왕을 죽이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걸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연이라는 단어는 대체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우연은 아닙니다. 왜 우연이 없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 하나 다 관할하고 계신다면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앳사리온에 팔린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식으로 하면 참새 두 마리면 얼마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참새 두 마리가 천원에 팔린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저 혈값에 팔리는 보잘 것 없는 참새 두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고 계실까요? 머리 한번 감으면 몇 개나 빠지죠? 왕창왕창 빠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인구가 얼마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실까요? 그걸 다 헤아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전능하신 분이라 하니깐 그러겠죠 싶어요? 전교인 수련회 때 특강시간에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아아둡시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건 아무 문제가 안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만 어렵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렵지 않은지 며칠 뒤에 특강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일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다 우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면 뭐예요? 필연이예요? 필연이라는 말은 성경에 더러 나올까요? 필연? 많이 나오니다. 성경에 나오는 '필연'은 전부 '반드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필연코 망하리라. 어떻게요? 반드시 망하리라. 필연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연의 반대는 필연이 아닙니다. 혹시 초등학교생들은 학교 가서 우연의 반대가 뭐냐 하면 필연이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초등학교생은 그렇게 말해야 되지만 우리는 우연의 반대를 뭐라고 해야죠?

하나님의 걱정하심.

하나님의 걱정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쏘았는데 아합 왕이 맞았더라. 그건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입니다. 어떤 사람이 활을 쏘았는데 필연코 아합을 맞았더라. 이걸 좀 말이 안돼요. 어떤 사람이 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쏘았더라. 그게 정확한 겁니다. 자기는 아무렇게 쏘았을지라도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우연이라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루어진 걸로 다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매사가 우연에 의해서 움직여 나갑니다. 우연에 의해서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전화위복'이라는 말 있죠? '전화위복' 무슨 뜻입니까? 화가 바뀌어 복이 된다는 말이죠? 화가 바뀌면 반드시 그게 복이 됩니까? 내가 화를 당했는데 그게 꼭 복이 돼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좀 다쳤는데 아! 이게 복이 되겠지. 맞습니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요? 우연에 의해서 사고가 일어났고 우연에 의해서 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우연에 의해서 더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복이 변해서 화가 되는 수도 있습니까? 아주 많죠. 전화위복이 있다면 '전복위화'도 가능합니다.

중국변방에 어떤 노인이 한 사람 살았습니다. 이 노인 집에 암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이 암말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하니깐 이 노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게 뭐 꼭 손해일 수가 있겠습니까?" 며칠 있다 보니까 이 암말이 정신 나간(?) 숫말을 일곱 마리인가를 끌고 집에 왔습니다. 황재를 했죠. 동네 사람들이 또 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복입니까?" 이 노인 대답은 "그게 뭐 꼭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집 아들이 이 말을 타고 놀다가 다리를 하나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또 왔습니다. 뭐라고 했게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슬픈 일이." 이 노인 대답은 "그게 뭐 꼭 슬픈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났습니다. 동네 청년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노인의 아들만 다리를 저는 바람에 살아 남았습니다. 이 중국 노인의 이야기를 '새옹지마'라고 합니다. 인생은 새옹지마다. 변방에 있는 [塞] 노인의 [翁之] 말 [馬]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좋다고 해서 너무 기뻐할 것 아니고 슬프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것 아니다. 좋은 얘기죠?

예.(합창으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가지고 좋은 얘기다 그러면 안됩니다. 왜요? 이 노인의 삶이 어때요? 좋아도 좋은 거 아니고 슬퍼도 슬픈 거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무슨 낙으로 살아요? 좋은 일 생겼습니다. 그거 뭐 좋은 일일까요? 슬픈 일 생겼어요. 그거 뭐 꼭 슬픈 일일겠습니까? 무슨 낙으로 살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우연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본입니다. 모든 일은 우연이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재미없어요. 집에 재미있는 일이 생겨도 기뻐할 일이 하나도 못 돼요 왜? 이것 때문에 무슨 나쁜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원칙 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화위복도 아니고 새옹지마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면 무슨 원칙요? 잘 아시는 구절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우리의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에 '모든 것'은 느낌이 주로 좋은 일 같습니까? 나쁜 일 같습니까?

좋은 일.

좋은 일요? 좋은 일이 모여서 선을 이루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의 모든 것은 안 좋은 일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병들고 실수하고 욕 얻어먹고 재산 날리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협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룬다. 누가 선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연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는 이거 확실한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이 되어지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연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우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뻐할 이유도 없고 슬퍼할 이유도 없고 사는 낙이 없어야 정상인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연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필연,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군데군데 나와 있으니깐 필연은 써도 되겠다 싶은데 이런 말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우연, 필연, 그 다음에 인연이라는 것 있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할 때의 이 인연.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극락이라는 말 있죠. 이런 단어들은 오염된 단어들이어서 우리가 쓸 때 조심해서 쓰든지 아니면 가급적이면 안 쓰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오염됐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혹시 여러분들에게 “동무가 많이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요즘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애들아 동무가 많으냐?” 이렇게 물으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많다고 하겠죠.

많다고 그래요? 요즘 동무란 말 써요?

아니요.

안 써요? 그런데 왜 많다고 해요? 동무가 친구예요? 요즘 아이들에게 “동무가 많냐?” 하면 동무가 뭔데요?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요즘 동무란 말 안 써요. 동무는 순수한 우리말이고 친구는 한자어거든요. 어느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동무가 좋은 말이죠? 제가 기억하는 노래 가사는 전부 동무예요. ‘동무들이 오너라 손잡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친구들이 오너라...’ 이렇게 부르면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요즘 왜 동무란 말을 안 쓰죠?

이북에서...

이북에서요? 북한 사람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아무나 보고 동무 동무 하나씩 결국 우리들이 그 단어를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글자가 오염이 됐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를 바른 뜻으로 자꾸 써서 북쪽에서 그걸 못 쓰도록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꾸로 돼서 우리가 동무란 말을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이 좋은 우리말을요. 극락을 예로 듭시다. 극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하는 분들은 설교를 좀 잘 들으세요. 왜 그런고 하니깐 목사님이 아마 주일 낮예배 설교 때에 극락이란 단어가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새벽기도는 아니고 주일 낮일 것 같거든요.

낮 예배 때 맞아요.

주일 낮 예배 때 맞죠? 그런데 낮 예배 때 하신 말씀을 기억 안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께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안 잊어버렸을 건데 자세하게 설명은 안하셨거든요. 미안합니다. 모처럼 대답하셨는데 야단을 맞은 꼴이 되어서요. 그러나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사실은 그런 대답을 기대하면서 질문하는데 그러셔야죠. 극락이 뭐니까?

지옥.

지옥이에요? 극락이 왜 지옥이에요? 좀 헛갈리셨나봐요. 시편 43편에 보면 나오니까 찾아보세요.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어떤 하나

님요? 그 극락의 의미는 지극한 기쁨, 최상의 기쁨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하니까 나의 최고의 기쁨의 하나님. 좋은 표현이죠? 그런데 이 극락이라는 것, 최고의 기쁨이란 단어를 불교에서 빌려가서 그렇게 써버린 거예요. 제가 왜 이 단어가 오염이 됐다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불교에서 해탈의 경지를 그렇게 표현하고나니 이 단어 원래의 의미, 즉 극한 기쁨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한 표현은 참 좋은 표현입니다. 이 단어를 안 쓰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심해서 쓰자는 의미는 이 극락의 본래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쓰든지 이 단어를 쓰면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 극락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쓸려면 조심해서 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깁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 이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있음을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기쁨 중에서도 가장 큰 기쁨의 하나님. 좋은 표현입니다. 조금 오염된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런 차이를 알고 잘 사용하면 소중한 말입니다. 인연이라는 단어가 또 특별히 불교 용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생에 무슨 이런 저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현재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걸 불교 사상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도 사상이지만 이 말속에 그런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인연이라는 것이 또 원래의 의미, 즉 '때문에'라는 뜻으로 잘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 의미를 잘 파악해서 쓸려면 쓰셔야 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찬송을 불렀는데 하필이면 그 찬송에 인연이란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찬송가에 '인연'이 들어가 있는 찬송가 가사 혹 기억나세요? 오늘 새벽기도 때 불렀는데.

풍랑... (신재균 장로님)

예, 맞습니다. 연로하신 장로님이 이런 어려운 걸 잘 대답하셨습니다. '이 풍랑 인연하셔서 더 빨리 갑니다.' 이 인연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런 뜻으로 인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야지 불교에서 말하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 이런 류의 인연은 성경에 없는 겁니다.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오해없이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 하나까지 다 주관하신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이런 단어들을 그렇게 오해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한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나 우연이나를 따져보기 위해서 문제를 몇 가지 냈습니다. 시험해보는 방법이 여기 몇 가지 나와 있는데 무엇무엇이 있나 한번 보세요. 7절부터, 첫째 뭐가 있죠? 이 법체를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잘 가지 않게 하는 게 요령입니다. 잘 가도록 해서 끌고 가버리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리로 못 가게 방해할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리로 간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 첫째 뭐가 있죠?

송아지.

송아지까지 갔습니까? 너무 멀리 갔습니다. 첫째는요?

명에.

명에. 그 앞에 또 있습니다.

새 수레.

헌 수레가 잘 갑니까? 새 수레가 잘 갑니까? 새 수레는 질날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이 잘 나 있는 제 차가 고물이라고 소문이 났지만 가긴 잘 가요. 왜요? 고속도로를 많이 뛰어서 질이 잘 나 있거든요. 지금은 잘 가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 수레, 빼격거리고 잘 나가지 않는 새 수레를 이용해서 보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명에.

명에 메어보지 아니한 소를 쓰죠. 명에도 메어본 소가 잘 메고 갈텐데 생판 안 해본 소에게 메고 가게 하는 겁니다. 건축할 때 등에 지는 거 있죠. 자갈 실어서 계단 올라가는 거요. 질통이라 합니까? 그걸 등에

지면 허리를 꼭 수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데 뻗뻗하게 서서 올라가다가 뒤가 무거우니까 뒤로 발라당 했죠. 큰 일 날 뻗했죠. 왜요? 평소 메어 봤어야 알죠. 공부나 하는 게 만만하게 보고 용감하게 달려들었지 만 쉬운 일이 아니더라구요. 메어본 소는 잘 갑니다. 그런데 멩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소에다가 메는 거죠. 그 다음은요?

젖나는 소.

그래요. 젖나는 소가 이것 메고 잘 가겠습니까? 그러면 암소네 그죠? 메고 가는 데는 아무래도 튼튼한 수소가 좋을 텐데 굳이 젖나는 소를 메게 하고 소는 또 두 마리죠? 한 마리 같으면 제 혼자 잘 갈 수도 있을 텐데, 두 마리 같으면 한 방향으로 가기가 더 어렵죠. 그 다음에? 송아지를 떼어놓고요. 이거 어렵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래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찌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사49:15)' 사람만 그래요? 이 점에서는 짐승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왜 하필이면 송아지를 떼어놓고 데려 가느냐? 송아지를 떼어놓고 가라고 하면 안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다가도 자기 새끼 찾아가갈 가능성이 많죠. 이것도 방해 요소입니다. 또 있습니까? 한 개 더 있습니다.

그 소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봤나 보세요. '보내어 가게 하고'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 하고 보내버립니다. 아무렇게나 보냈는데 이 소가 다른 데로 안 가고 벤세메스로 곧장 가면 이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시험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소를 보내서 소가 목적지를 정확하게 찾아갈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할 때는 확률이 아주 낮은 방식으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해도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틀림없다고 확인하는 거죠.

하나만 더 확인을 하고 지나갈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법케를 보내는 이 방법이 전혀 틀렸습니다. 어떤 점에서 틀렸죠? 하나님의 법케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지 않습니다.

숫소.

아, 암소가 아니고 숫소를 이용해야 한다? 번제를 드릴 때는 그렇지만 수레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법케 운반하는 방법은 메고 가는 겁니다. 절대 수레에 신지 않습니다. 이 수레에 실었다가 큰일이 난 적이 있습니다. 항상 제사장이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것 말고 하나 더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 했을 때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제사를 드릴 때 피흘림이 따라야 합니다. 피흘림이 따라야 하는데 이 방백들은 피흘림보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금은 보물을 열심히 챙긴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그 방식대로, 그러니까 자기들의 방식대로 그냥 해본 겁니다.

이 방식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아 주신 겁니까? 아니면 거절하신 겁니까? 받아주신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방법은 서툴렀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십니다. 교회를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를 나올려고 하는데 "아이고 술, 담배를 못 끊어서 어떻게 할까요?"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하면 안되니까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렇게 해서 교회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아,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러면서도 교회 오십시오." 어느 쪽이어야 돼요?

먹고 소리는 빼고 그냥 오세요.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겠다는 마음이 생겼을 그 때는 술, 담배 그게 뭐니까? 그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신경도 쓰지 말고 교회 나오라고 해야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우선입니다. 서투르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다면 중요한 것입니다. 10절로 또 넘어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특별히 이렇게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몇 점이 나온 것 같습니까?

100점.

100점요? 100점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점수가 있습니까?

0점

0점요? 시험을 쳤는데 완전히 틀렸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나 아니면 우연이나 하고 알아볼려고 온갖

공리를 다 했는데 나온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걸 확실하게 하나님 뜻이다라는 답이 나왔죠. 그럼 몇 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100점을 넘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건 벤세메스로 똑바로 가나 안 가나 이것만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들이 시험친 것보다 더 잘 된 게 몇 가지 나옵니다. 우선 11절 끝에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앞에서는 '실어서 가게 하고' 그랬거든요. 여기는 가게 한다는 말이 빠졌어요. 그냥 실으니까 소가 알아서 가더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요? '벤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했습니다. 하기가 소도 큰 길만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로로 간다는 것은 가장 빠른 길로 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면서 울어요.

새끼 생각이 나서.

그렇죠. 새끼를 떼어놓고 가면서 우는 겁니다. 울며 가는 소는 내버려두면 돌아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 소는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울면서 가는 겁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효력이 나오는 겁니다. '저 소가 갈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가는구나' 그 다음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벤세메스 방향으로 가다가 길이 막히지 않았다면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지나갈 수도 있는데 정확한 지점에 도착해서 제자리에 선 겁니다. 어디에 도착했어요?

벤세메스

그것보다 더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섰더라고 돼있죠? 이 큰 돌은 뭐하는데 사용하죠? 제사 지내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지[자기] 죽을 자리에 가서 서서 멈추고는 날 잡아 제사 지내시오 라고 그 자리에 가서 딱 멈춰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정확하게 그 자리까지 간 겁니다. 시험으로 친다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바른 답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볼 때엔 '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 방백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블레셋 방백들이 싸움에 이겨서 노획을 해 왔는데 자기 나라에 전염병이 돌고 엄청난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거냐 아니면 우연이나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아, 이걸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맞더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다곤 신당.

그렇죠. 다곤 신당에 갔다 왔더니 다곤이 목이 찢리고 팔이 찢리고 넘어지더라. 그러면 우리 다곤 신은 이 여호와와 비교하면 게임이 안되는 거다. 그리고 이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구나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으로 받아들이고 섬기는 게 옳지 않느냐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블레셋 방백들은 어떻게 해요? 아,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게 맞네 하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점쟁이나 무당이 굿을 하고 점을 치다가 잘 안 되면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그러거든요. 용케 또 찾아낸다고 그래요. 예수 귀신이 여기 있어서 점이 안되니까 좀 나가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귀신이나 신보다 예수 귀신이 훨씬 강하고 위대하다는 걸 인정하면서 나가달라고 하지 자기 것을 포기 안 하더라는 얘깁니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이렇게 위대한 기적을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팍 생길 거라고요?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때 그 부자가 지옥 불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 있죠?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전해 주십시오. 아마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가면 그 말을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갈 필요 없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전한다 해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이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쉽게 온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마치고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어떤 귀신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습니

다. “아이고 예수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이걸 못 고칩니다. 예수님이 화가 몹시 나셨습니다. 얘기를 좀 생각하고 “제발 좀 살려 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제발 좀 살려 주십시오.” 이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생각해보니까 아! 뭐만 있으면 고친다? 믿음만 있으면 고치거든요. 그래서 얼떨결에 한 말이 뭐냐 하면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믿나이다 했잖아요. 믿음이면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엉겁결에 했던 이야기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성경이 어렵긴 어렵나봐요. 우리 효자제일교회에서 의견이 갈릴 정도니까요. 있다? 믿음 없음을 도와 달라 했잖아요? 그 전에 믿나이다 했으니까 있고요?

도와주십시오 했잖아요.

아!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요? 확신이 너무 많으면 참...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만 있으면 고친다? 자기 속을 보니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긴가민가 해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제가 믿음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해서 못 고쳐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라고 해야 돼요? 믿나이다 해야지요. 믿든 안 믿든 그 때는 믿나이다 해야지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때는 무조건 믿나이다 해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을 갖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이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이 절규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 분들에게 이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소개하십시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는다고 말한다고 덜컥덜컥 주어지는 거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는 여전히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를 도와 달라고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우리 목사님 정말 멋진 말씀 한 번 남기셨습니다. 뭐요? 우리의 믿음은 결코 값싼 게 아닙니다. 싸구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요. 믿고 싶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당장 우리 주변에 “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싶고 당신네들처럼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사는 것 보기 좋아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그런 갈등 한번 안 해보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건지 모릅니다. 아마 이중에 하나님을 한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복 중에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아주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아, 하나님께서 하신 게 맞네 하고 그냥 돌아갔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 속에 믿음이 있음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런지 모릅니다. 기도합시다.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일이고 하나님의 간섭하심 없이 이루어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히 되어지는 일로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참으로 기뻐할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이 무미건조하게 살 수 밖에 없는 그들의 삶이지만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귀한 지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쳐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용감하게 살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이 놀라운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욱 감사하고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는 저희 효자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